

오전(1부) 대방동 7시
오전(2부) 7시30분
주일에배 오전(3부) 10시
오후(4부) 3시
수요일예배 (저녁) 8시30분
서울 교회 02)533-9191
장소: 강서구 공항대로 376 KBS스포츠월드



오전(1부) 7시30분
오전(2부) 10시
주일에배 오후(3부) 3시
저녁예배 7시
금요일예배 (저녁) 8시
인천 교회 032)763-9191
장소: 인천시 서구 백범로 652번지

대한예수교장로회 예수중심교회

2018년 10월 28일 (제974호)

(서울)서울시 용산구 용산우체국 사서함 37호 Tel. 02)533-9191 Fax. 02)592-9191 (인천)인천시 서구 백범로 652번지 Tel. 032)763-9191 Fax. 032)575-5730 http://www.jcc.tv(철야 주일 예배 위성 및 인터넷 생방송)



봉우 컬럼

사는 게 복이다

“모든 산 자 중에 참여한 자가 소망이 있음은 산 개가 죽은 사자보다 나음이니라.” 이는 전도서 9장 4절의 말씀이다. 무슨 말씀인가 하면 비록 능력 있고 위풍당당했다 하더라도 죽었으면 살아있는 천한 자보다 못하다는 말씀이다. 왜 나온지 다음 구절이 말해주고 있다. “무릇 산 자는 죽을 줄을 알되 죽은 자는 아무 것도 모르며 다시는 상도 받지 못하는 것은 그 이름이 있어 버린바 됨이라.”

죽은 자는 더 이상 희망도 소망도 없을뿐더러 더 이상 기회도 없기 때문이다. 인생에 마침표가 찍히면 모든 것이 끝이다. 만회할 수도, 반복할 수도, 노력할 수도, 회개할 수도, 봉사할 수도 없다. 그래서 산 개가 죽은 사자보다 낫다. 또한 내세의 삶이 현세의 삶에 의해 좌우되는 것이기에 삶이 참으로 중요한 기회임을 아울러 말씀하고 있다.

믿음을 소유한 자들이 범하기 쉬운 과오가 이것이다. 이 땅의 것은 헛된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 말이다. 그러나 이 땅은 내세의 토대다. 이 땅의 행함이 내세에 그대로 반영되기 때문에 인생을 어떻게 사느냐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씨를 뿌리는 땅이 이 세상이다. 씨를 뿌린 대로, 행한 대로 그 나라에서 거두는 것 아닌가.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롬2:6). 전도서는 ‘Now & Here(지금과 여기)’를 중시하고 있다. 내일은 우리 소관이 아니니 당연한 말씀이다. 그러니 지금 주를 위해 일하고, 지금 주의 뜻대로 살자. 내 옆에 있는 사람을 오늘 사랑하고, 오늘 용서하고, 오늘 기도하고, 오늘 십자.

살아 있다는 것 자체가 기회다. 이 기회를 잡는 자가 지혜로운 자다. “너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날는지 네가 알 수 없음이니라”(잠27:1).

어디를 가든지 먼저 하나님을 찾아라

1년만의 방문이다. 도쿄 나리타공항에는 지바예수중심교회 담임 김장길 목사를 비롯한 교역자들이 나와 반갑게 맞아 주었다. 오키나와부터 홋카이도까지 일본 전역에서 모였다고 한다. 유튜브의 과급효과는 일본도 마찬가지였다. 작년보다 더 많은 성도들이 성전을 가득 메웠는데, 예배 후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니 많은 사람들이 유튜브를 통해 목사님의 메시지를 접하게 되었다는 소식이다. 인천공항에서 만난 목사님은 간밤에 한숨도 자지 못하고 기도만 하셨단다. 도쿄행 비행기에서 잠깐 눈을 붙이신 목사님은 곧바로 지바예수중심교회로 이동하여 창립23주년 기념예배를 인도하셨다. “나는 간밤에 한숨도 자지 못하고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만사

가 마비되었을 때도 나는 의원을 찾은 것이 아니라 나의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찾았습니다. 내 어머니나 가족보다도 먼저 하나님이었고, 내 재산과 목숨까지도 그분을 위해 다 던졌습니다. 내가 오늘날 하나님의 복을 받아 전 세계에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로 쓰임 받는 것은 오직 하나님 제일중심으로 살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노라 하면서도 하나님보다 세상의 권력과 돈을 찾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먼저 남편을 찾고 아내를 찾습니다. 몸이 아프면 먼저 ‘하나님, 몸이 아파요. 고쳐주세요.’라고 하지 않고 용하다는 약과 의원을 찾기에 급합니다.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라 하셨습니다. 하나님보다 세상의 것들을 우상 삼아 잘된다면 하나

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여러분의 신앙을 재정립해야 합니다. 항상 먼저 하나님을 찾는 사람은 악한 마귀가 절대 건드릴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다음으로 목사님은 자신에게 맞는 것을 찾으라고 가르치셨다.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많은 사람들이 피폐한 삶을 사는 것은 자신에게 맞는 것을 찾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자신에게 맞는 사람, 맞는 직업, 맞는 옷, 맞는 신발, 맞는 집, 맞는 취미, 맞는 운동을 찾아야 합니다. 먼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물어보아야 할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맞지 않는 신발이 얼마나 힘들니까? 맞지 않는 사람과 일하고, 맞지 않는 사람과 결혼하는 것은 지옥의 문을 여는 것입



일본 지바예수중심교회 창립23주년 기념예배

행통하길 원하면 어디를 가든지 먼저 하나님을 찾아야한다고 가르치라’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 제일중심의 신앙생활을 강조하시는 것입니다. 일본에 왔으면 먼저 하나님께 ‘저 일본에 왔어요, 하나님.’ 하고 보고하라는 것입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하나님, 단잠을 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가장 먼저 하나님께 인사하라는 것입니다. 무엇을 하든지, 어디를 가든지 가장 먼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물어보라는 말씀이었습니다. 나는 지금까지 예수를 믿으면서 오직 하나님을 내 삶의 최우선에 두고 달려왔습니다. 사지

님이 안 계신 것이지요. 나도 내 자식들이나 손자들이 내 말을 안 들으면 쳐다보지 않습니다. 하나님도 잠언 1장에 하나님의 교훈과 책망을 듣지도 않고 멸시하는 자들에게 ‘나를 불러도 대답지 않겠고, 부지런히 찾아도 만나주지 않겠다’고 경고하셨습니다.

먼저 하나님을 찾고 먼저 하나님께 물어보세요. 이것이 옳고 의로운 길입니다. 그러하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을 책임지십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은 성경의 말씀을 한 구절로 묶어놓은 것입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

나. 역시 준향은 생각조차 말아야 합니다. 남의 떡이 커 보인다고, 남의 잔디가 더 푸르게 보인다고 혹해서는 안 됩니다. 마음이 맞고 신앙이 맞고 목표가 같은 사람을 만나는 것이 복 중의 대복입니다.” 통역을 하던 김경숙 목사는 ‘먼저 하나님을 찾으라’는 하나님의 음성에 흐느끼며 통역을 잊지 못했다. 통성기도 시간에 오늘의 말씀을 깨달은 성도들이 울며 애통하며 기도하는 모습은 정말 아름다웠다. 하나님은 이처럼 폭포수 같은 은혜로 지바예수중심교회 창립 23주년을 넘치도록 축하해주고 계셨다. **한은택 목사**



예배 후 모든 성도들을 안수해주심



도쿄 나리타공항에서 영접하는 일본 교역자들



성령으로 뜨겁게 기도하는 지바교회 성도들



이초석 목사 주일설교(마28:16~20)

우리,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21세기의 교회는 1세기 교회로 돌아가야 합니다. 더욱 구체적으로 말하면 모든 교회가 초대교회로 돌아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초대교회가 교회의 모본(模本)이기 때문입니다. 이는 현대의 교회가 모본에서 벗어났다는 것이고, 이는 곧 교회에 개혁이 필요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초대교회는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초대교회는 기도로 탄생했습니다(행1). 예수님의 명령대로 마가다락방에 모인 120문도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안식일을 어겨가면서까지 전혀 기도하곤 했습니다(행2:42). 그것이 초대교회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교회는 돈으로 세우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의 좋은 입지조건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교회는 오직 무릎으로 세우는 것입니다. 초대교회가 세워질 당시에는 예수를 믿으면 핍박을 받던 시절이었습니다. 심지어는 목숨을 내놓아야 하는 실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초대교회가 날로 부흥된 것은 오직 기도했기 때문입니다.

기도하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 안부나 묻는 기도가 아니라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전혀 기도하곤 하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한국교회가 문제가 많고, 교회 안에서 서로 갈등하고 싸우는 것은 기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악한 마귀가 원하는 것은 사람들이 교회에 안 다니는 것이 아니라 교회는 다니지만 기도하지 않는 것입니다.

나무에서 떨어진 가지는 빨갛게 불과할 뿐이다

우리교회의 이전 명칭은 한국예루살렘 교회였습니다. 이름만 같았던 것이 아니라 그 당시 우리 교회는 초대 예루살렘 교회를 방불케 할 만큼 기도하곤 전했습니다. 일반 성도들도 밤이 새도록 기도하곤 했습니다. 그런데 요즘 기도처에 기도하는 사람이 없습다. 기도처는 말 그대로 기도하는 곳인데, 기도의 불이 꺼졌으니 답답한 노릇입니다. 다시 기도의 불씨를 살려야 합니다. 기도만이 우리가 살길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초대교회는 성령 충만하여 능력이 있는 교회였습니다. 그렇게 전심으로 기도하는데 당연히 성령 충만하지요. 더불어 능력이 있는 교회였지요.

그들이 전혀 기도하곤 힘쓰고 있을 때 예수님의 약속대로 성령이 그들에게 임했습니다. 그러자 방언을 말하게 되었고, 능력을 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쫓고 병을 낫게 했습니다. “사도들로 인하여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행2:43). 사도행전 3장에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하러 가다가 미문에 앉은 앉은뱅이를 예수 이름으로 일으키는 등, 사도 외에 평신도들까지 다 능력이 있었습니다. “스테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하니”(행6:8).

그런데 오늘의 교회들은 영적 능력이 소멸된 지 오래되었습니다. 기사와 표적을 나타내던 교회들이 ‘잘못되었다’, ‘이단이다’는 소리를 듣지 않으려고 능력을 행하지 않아 능력이 소멸된 것입니다.

우리 교단은 성령의 역사를 인정하고, 능력을 행하는 교회입니다. 분명히 ‘성령이 임하면 권능을 받는다’(행1:8)

고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권능(權能)은 권세와 능력입니다.



총회장 이초석 목사

다. 하나님 자녀의 권세와 성령의 능력으로, 예수 이름으로 악한 영을 대적하고 귀신을 쫓아내며, 병을 고쳐야 하는 것입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찌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막16:17~18).

예전에는 우리 성도들도 다 귀신을 쫓고, 병든 자에게 손을 얹고 안수하여 병을 고쳤습니다. 지금은 예전만 못합니다. 왜 그럴까요? 기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분명히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막9:29)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기도의 회복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리고 초대교회는 전도에 힘쓴 교회였습니다. “우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행4:31). 120문도로 시작한 초대교회는 베드로의 전도로 삼천 명이 되었고(행2:41), 나

중에는 남자만 오천 명이 될 정도로 부흥이 되었습니다(행4:4). 그렇습니다. 성령을 받으면 가만히 있을 수가 없습니다. 제가 성령을 처음 받았을 때 사업이고 뭐고 생각할 겨를이 없었습니다. 누군가에게 이 복된 소식을 전하고 싶은 마음에 다니던 술집이며, 친구며, 운영하던 학교와 유치원에 찾아가 전도했었습니다. 크리스마스 때에는 산타분장을 하고 데이트하던 연인들에게 초콜릿을 나눠주며 복음을 전했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행1:8).

여러분, 성령은 증거의 영입니다. 내 힘으로 전도하려고 하니 어려운 것

입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하면 전도가 어렵지 않습니다. 어부 출신 베드로가 언변이 뛰어나

서 전도를 잘한 것이 아니라 성령이 임하니 사람들이 놀라 ‘그가 원래 학문이 없는 범인이었는데 이상하네!’(행4:13) 할 정도로 설교를 잘했던 것입니다.

바울은 워낙 학문에 뛰어난 자이긴 했지만, 세상의 지식을 배설물로 여겨 버리고 난 후에,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지혜의 권하는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고전2:4~5)고 고백했습니다.

전도하라고 하면 다들 자라락 들어가듯 하는데, 내 힘으로 하려고 하니깐 그런 겁니다. 기도하고 성령 충만하면 사람 앞에 설 때 무슨 말을 해야 하는지 성령이 다 알게 하십니다.

11월 27일부터 사흘 동안 있을 올림픽 공원 집회를 위해 우리는 40일 작정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기도했으면 내가 전도해야 합니다. 집회 장소를 채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집회를 통해 많은 영혼이 구원을 받고, 첫사랑을 잃은 자들이 다시 첫사랑을 회복하고, 하나님을 떠나 방황하던 영혼들이 다시 하나님께 돌아오는 기회가 되도록 기도하고 전도해야 합니다. “우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행4:31). 그 다음으로 초대교회는 사랑이 넘치는 교회였습니다. “믿는 우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행4:32).

21세기 교회 부흥의 비결은 1세기 교회로 돌아가는 것이다

교회는 한 마음 한 뜻이 되어야 합니다. 악한 마귀는 어떻게든 분리시키려고 합니다. 그래서 서로 싸우게 하고, 당을 짓게 하려고 합니다. 사분오열시켜서 갈등하게 하는 것이 마귀의 전략입니다. 요즘 한국교회의 양상이 바로 악한 마귀가 원하던 것입니다.

고로 우리는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래 우리는 한 형제이니 마땅히 하나가 되는 게 옳습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모든 겹손과 운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의 매는 줄로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엡4:2~3).

요즘 교회 안에 사랑이 없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상처를 받고 세상으로 가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능력을 행하는 교회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님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찌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썰매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찌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 것도 아니요”(고전13:1~2). 서로 이해하고, 서로 아껴주고, 용서하고, 허물을 덮어주며, 가난한 형제를 구제하고, 악한 자를 일으키며, 아픈 자를 감싸주는 교회가 됩시다. 그곳에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교회는 세상의 빛입니다. 그런데 이 빛이 사라지면, 빛을 잃으면 세상은 희망이 없습니다. 그러니 우리 초대교회로 돌아가 세상을 밝히는 빛이 됩시다. 초대교회처럼 전혀 기도하고 성령이 충만하여 능력을 행하는 교회, 누구나 전도에 매진하는 교회, 그리고 사랑이 넘치는 교회가 됩시다. 할렐루야!

구제 및 선교 후원금

1379-01-001903

농협

695001-01-122494

국민은행

예금주: 예수중심교회

:: 객원컬럼 ::

:: 용달샘 ::

초심과 원칙

대한민국의 현대 경제사를 보면 질적 향상을 할 수 있는 구조조정의 기회가 세 번 있었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1986년부터 88년까지 지속되었던 3저 현상의 시대, 즉 저유가, 저금리, 그리고 최초의 저달러 시대였습니다. 이런 외적 환경요인으로 인하여 건국 이래 처음으로 무역수지 흑자달성을 실현하였고, 대외 국가채무에 대한 원리금 부담까지 완화시켜 국가경제는 최고의 수준을 실현하였습니다. 그러나 해외시장에서 중국과 경공업제품에서 가격경쟁이 시작되었고, 신규개발이 엄청나게 어려운 자동차 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내수시장의 확대를 결정하고 할부금융제도를 본격적으로 안착시키기 시작했습니다. 두 번째는 1998년의 외환위기 사태입니다. 사회 전반에서 천문학적인 실업 및 기업의 도산을 야기하였으나 결단력 있는 조치, 전자전기 산업에 기반을 한 정보통신분야 산업의 육성, 그리고 석유화학 및 철강 산업의 약진은 신속하게 국가경제를 회복시켰습니다. 그러나 고용을 단기간에 증대시키고 산업 전 분야에 과급효과가 높은 대단위 주택건설, 그리고 자영업 분야에 대한 적극적인 금융지원이 가계의 지출구조를 소득기반에서 부채기반으로 빠르게 전환시켰습니다. 세 번째는 2008년 미국 발 금융위기입니다. 국내시장에 전이될 수 있었던 절대손실과 여파는 1998년 외환위기 때보다 컸지만 축적된 학습효과와 정비된 비

상대책, 그리고 대외적으로는 미국, 유럽, 그리고 일본 중앙은행의 대대적인 양적 완화정책으로 국내의 금융기관들이 유동성 공급을 확대하고 저금리를 유지하여 기존 구조의 유지에 대한 장애요인을 최소화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인 저금리 기조와 해외시장의 성장문화로 자본은 기업에 대한 투자나 산업다변화보다는 내수시장의 부동산 투자와 소모성이 높은 문화 산업에 대한 지출을 크게 확장시켰습니다. 2018년 현재 대한민국 국민 총생산량(GDP)은 세계 12위 수준을 달성하였고 가계의 지출수준은 이미 북미나 유럽의 수준에 근접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부채에 대한 의존도는 가파르게 성장하고 있고, 또한 시장원칙에 준하지 않고 인위적으로 집행하여온 특정분야에 대한 산업육성정책은 기준금리에 대한 조정시점까지 지연시키고 있습니다. 따라서 정치인은 물론 국민 개인들도 반대를 위한 반대, 혹은 진통제와 같은 단기정책에만 집중하지 말고 사실관계를 먼저 겸허하게 인정하고 잘못된 지점을 찾아 초심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30여 년간 총회장 목사님은 세상의 풍조, 원리, 그리고 다수의 의견에 따른 합리성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만 최우선으로 따르시고, 또한 조금이라도 벗어나면 과감히 인정하며 수정하셨기 때문에 새로운 30년의 시작을 선포하실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임윤석 집사

:: 문을 열라 ::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

서울대 사범대학원 입학과정에 관한 글에 이어 이번에는 졸업논문 쓰는 과정에서 함께 해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사범대학원 교육학과는 석·박사과정 신입생들이 입학 후 두 학기 이내에 논문지도 교수를 선정하는데, 저희 교육행정 전공 같은 경우는 1학기 때 지도교수님을 선정합니다. 저는 입학전부터 하나님께 기도하던 교수님이 계셨는데 그 분이 안 되고 다른 교수님으로 선정했습니다. 그러나 4학기 논문지도 학기 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너무나 딱 맞는 교수님을 배정해주셨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희 지도교수님은 처음부터 끝까지 꼼꼼하게 지도해주신 분으로 공교육 교사가 아닌 사교육 강사인 저에게 정말 많은 도움과 가르침을 주신 분이셨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분임을 다시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중요한 일을 선택하거나 결정할 때 항상 총회장 목사님께 기도를 부탁드리고, 목사님께 조언을 구하고, 그 조언에 순종합니다. 논문을 쓸 때도 목사님의 기도와 조언이 정말 많은 도움이 되었는데요. 한번은 올해 3월에 제가 국

회 세미나 중에 한 정치인이 주관하는 교육 세미나에 가보고 싶어서 목사님께 세미나 포스터를 보내드리며 여쭙보았습니다. 목사님께서 한 번 가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다고 하시기에 국회에 가서 그 세미나를 듣는 중, 제가 논문주제로 쓰고 있던 자율형 사립고(자사고)의 연합회장님을 그 세미나에서 만나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세미나를 마친 후 그 분께 제 이력과 함께 자사고에 관한 논문을 쓰고 있다고 말씀드렸더니 학교로 오라고 하시는 겁니다. 그분은 교장실에서 사학과 자사고에 관한 통찰력 있는 역사와 배경을 직접 설명해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자사고 중에서 가장 교육 프로그램이 좋은 A자사고의 교장선생님을 그 자리에서 전화로 소개해주셔서 논문작성에 큰 도움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A자사고의 세부적인 교과과정 및 운영사항에 관한 설명도 직접 듣고, 학교선생님들 면담, 학부모 면담, 졸업생들 면담까지 순조롭게 마칠 수 있었습니다. 이 모든 과정에 함께 해주신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그리고 항상 기도해주시는 총회장 목사님께 정말 감사드립니다. 문하은 전도사

천국(天國)

우리는 영원한 우리의 고향, 그 나라를 늘 사모하며 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당신은 천국을 어떻게 표현하시나요? 사람들은 천국에 대해 이렇게 말합니다. 그곳은 눈물이 없고, 사망이 없으며, 어둠도 없고, 고통도 없고, 해치는 것도 없고, 배고픔도 없으며, 아픔이 없는 곳이라고. 왜 사람들은 없는 것들로 천국을 표현할까요? 그건 이 땅이 힘들고, 아프고, 고통스럽고, 악한 자들 때문에 무섭고, 경쟁에서 밀려 절망스럽기 때문일 겁니다. 그래서 천국은 ‘그런 것들이 없어 좋겠다’는 마음에서 그럴 겁니다. 천국은 정말 악한 것도, 나쁜 것도, 아픈 것도 없는 좋고 아름다운 곳, 맞습니다. 그러나 정말 천국이 좋은 이유는 그곳에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 아닐까요? 늘 그림고 사랑하는 예수님이 그곳에 계시기에 천국이 더욱

좋은 것 아닐까요? 연애하는 사람들은 사랑하는 사람과 같은 하늘 아래에 있는 것만으로도 행복하다고 합니다. 하물며 예수님과 한 공간에 있다면야 무엇을 더 바라겠습니까? 이런 이치라면 이 땅에서도 천국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성령으로 우리 안에 거하시면 우리 삶이 바로 천국이 되는 것이니까요. 눈으로 직접 볼 수는 없지만 그분의 사랑을 느낄 수 있고, 삶 속에 함께 하시는 증거요 표적이 나타나니까요. 예수님이 계시는 천국, 그리고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우리 삶에서의 천국이 임하기를 기도합니다. “주의 얼굴 뵈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맘속에 이뤄지니 날로 날로 가깝도다/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예수중심편집실



:: 삶이 있는 이야기 ::

굴절되지 않는 하나님의 빛

아이들을 키우면서 갖는 한 가지 소망은 아이들이 하나님의 빛을 뿜어내는 보석처럼 성장하는 것이다. 세상이 그 빛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말이다(마5:16). 한번은 소풍을 가는데 선생님이 소외받는 친구가 없도록 점심 먹을 틈을 정하자고 하셨단다. 아이는 제일 먼저 손을 번쩍 들고 왕따를 당하는 아이와 함께 먹겠다고 했다. 순간 반 전체가 조용해졌고, 쉬는 시간이 되자 친구들이 몰려들었다. “너 설마 진심이야?”, “어, 한번 뵈는 말은 되돌릴 수 없어.” SNS에 올라온 소풍사진을 보니 다들 삼삼오오 모여 도시락을 먹고 있는데, 우리 아이와 그 아이가 손바닥만 한 돗자리에 마주앉아 밝은 표정으로 도시락을 먹고 있었다. 무한 칭찬을 해줘도 모자랄 상황인데, 그날은 왠지 ‘계속 이렇게 키워도 괜찮을까’라는 딜레마에 빠졌다. 이렇게 말씀대로 살아가는 손해를 보거나 따돌림을 당할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이 싹텄다. 고민하던 중에 우연히 ‘운을 읽는 변호사’라는 책을 읽게 되었다. 변호사인 저자가 50여 년간 1만여 명의 의뢰인들의

삶을 지켜본 결과, 손해를 보더라도 선한 삶과 용서를 택한 사람들이 결국 잘 되었다는 내용인데, 어떤 초월자가 인간을 낱알이 살펴보고 있기 때문인 것 같다고 했다. ‘역시! 그 분이 하나님이 지.’라며 혼자 중얼거리다가 정신이 번쩍 들었고, 내 자신이 한없이 부끄러워 얼른 돌이켰다. 이 계기를 통해 아이는 오히려 인간관계의 폭이 더 넓어졌다. 진리의 말씀을 교묘히 의심하게 하는 것이 사탄의 전략이다. “지금 시대가 어느 텐데?” 하나님의 빛에 부정의 프리즘을 들이밀어 굴절된 허상을 바라보게 하는 것이다. 하지만 그것은 틀렸다. 하나님의 빛은 분명하고 곧게 수 천년의 역사를 관통하여 영원을 향해 가고 있다. 험한 세상일수록 말씀 안에서 가치관을 찾으면 진리가 우리의 앞길을 곧게 비추어주시리라 믿는다. 위태로운 포로생활 속에서도 다니엘은 하나님의 빛을 분명히 발했기 때문에 세상으로부터 존귀히 여김을 받았다. 더욱이 말씀대로 가르치지 않는 것은 부모의 책임이지만, 아이가 그 말씀에 따라 빛을 내며 살아내는 것은 우리에게 능력주시는 하나님 덕분이 아닌가. 이호은 사모

:: 내가 매일 기쁘게 ::

:: 빛이 되리라 ::

부지중에 만난 천사가 준 깨달음

나는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좋아한다. 특히, 부지중에 찾아온 세 천사를 대접한 아브라함의 이야기는 많은 사람을 상대하는 직업을 가진 나에게는 하나의 모범 답안이자 롤모델이다.

요 며칠 몸과 마음이 지쳐 영혼도 메말라가는 것 같아 하나님의 평안이 임하길 기도하고 있었는데, 아브라함에게 찾아온 천사처럼 나에게도 천사가 찾아와 많은 것을 깨닫게 해준 일이 있었다.

학원에서 보통 상담을 하면 어머니 혼자 오거나 자녀와 동행하는 것이 일반적인데, 며칠 전에 오신 어머니는 2살짜리 아이를 안고 아버지와 함께 셋이 들어오셨다. 흔치 않은 일이라 꽤 인상적이었는데 아버지의 모습이 어쩐 그렇게 목사님 같으신지 상담을 이어가면서도 아버지를 자주 보게 되었고, 아이를 돌보는 아버지의 눈길과 손짓에 시선을 빼앗기게 되었다.

상담 도중에 아이가 칭얼거리려 아버지가 아이와 함께 잠깐 나갈 때였다. 일초의 망설임도 없이 “근데요, 어머니. 아버님이 딱 목사님 같이 생겼어요!”라고 말씀을 드렸더니, 내 말이 끝나기도 전에 “목사

님, 맞아요!”라며 활짝 웃으셨다. 들어오실 때부터 환한 얼굴에서 느껴지던 인자함과 신실함이 내가 허투루 느낀 게 아니었음을 확인하는 순간이었다. 그 이후로 상담은 일사천리로 진행되었고, 나는 그 목사님께 ‘목사님의 자녀 교육을 책임지겠다’는 약속과 수강료 할인을 제안하면서 축복기도를 부탁드렸다. 칭얼거리던 아이를 달래던 목사님은 깜짝 놀라시더니 웃매무새를 고치시고는 넘치는 축복기도를 해주셨다.

목사님 가족을 배웅하고 난 뒤, 나는 주체할 수 없는 감격과 기쁨에 잠시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다. 목사님께서 남기고 가신 축복기도도 감사했지만,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나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라고 말하는 목사님의 모습이 오래 아른거렸다. 나는 ‘과연 저 목사님처럼 누군가에게 주님의 사람으로 보일 수 있을까?’라는 질문이 가슴에 맴돌았다.

나도 그 목사님처럼 나의 말과 행동에서 주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묻어나오는지, 나의 손길이 누군가와 협력하여 그리스도의 선을 이룰 수 있는지 다시금 돌아

보게 되었다. 내 영혼의 곤고함을 위로받으려고만 했지 주님의 사랑을 스스로 실천하려고 노력하지는 않았던 나 자신을 반성하였다. 그리고 한편으로는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었느니라”(히13:1~2)는 말씀을 실천하려고 다짐하고, 나에게 주어진 자리에서 주님 보시기에 부끄럽지 않도록 최선을 다했던 내가 자랑스러웠다. 어쩌면 뜻하지 않은 목사님의 방문은 그간 날 괴롭혔던 영혼의 곤고함을 위로해주신 주님의 인도일지도 모르겠다. 삶의 무게와 막막함에 방향키를 잃은 듯한 느낌이었는데, 내가 가고 있는 이 길이 맞다는 확신을 얻었기 때문이다. 아브라함을 찾아온 천사들이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약속하신 것처럼, 부지중에 날 찾아오신 목사님의 기도가 하나님께 닿아 응답받게 될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는다. 아멘.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딤후 6:18).

전훈지 집사

ppjee@hanmail.net

을 만들어서 그 길이 마치 구원의 방법인 양 주장하지만 그 길은 짧은 길이요, 막힌 길입니다. “예수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십니다. 예수로 말미암지 않고는 하나님 나라에 갈 수가 없습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입니다. 인간의 방법이나 힘과 노력으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하신 방법대로 따라가야 합니다.

“다른 이로써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행 4:12).

상화평 목사

sanghwapyung@hanmail.net

:: 영생에 이르는 길 ::

범사에 잘 됩시다

우리 교회는 정말 성령 충만한 교회입니다. 과연 어느 교회가 이렇게 뜨겁게 예배드리고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절절할까요? 덕분에 우리는 여러 교회로부터 시기와 질투를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저 안타까울뿐입니다.

그들의 시기와 질투에서 이기는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것은 그들과 입씨름을 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목사님이 늘 기도하신대로 우리가 각 분야의 수장이 되는 것이고, 범사에 잘 되는 것입니다. 나무가 아름다워지면 그 아래 참새도 깃들고 사람들이 쉬러 오는 법이니까요.

그래서 저는 지혜롭고 분명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또한 한 분야에 뛰어난 인물이 되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했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누군가 저에게 우리 교회를 비웃거나 폄박할 때면 이렇게 이야

기합니다. “저는 누구나 인정하는 좋은 대학을 나와서 좋은 회사를 다니고 있습니다. 이 교회를 통해 나는 성장했고, 빠르게 잘 자라왔습니다.” 교만함으로 느껴질지 모르겠지만 저는 지금까지 제가 노력한 것들을 생각하면 이렇게 간증하는 것에 대해 당당합니다.

참새가 보는 하늘과 독수리가 보는 하늘의 크기는 분명 다른 것처럼, 사람들은 누구나 자기 수준에서 세상을 판단합니다. 누구나 자기 수준 이상을 뛰어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저는 사회적으로 더 높은 수준에 올라가고 다다를수록 하나님의 섭리를 느낍니다. 제가 성장하면 할수록 더 넓은 시각에서 하나님을 느낍니다. 저는 다음에 또 그런 폄박이나 모함소리를 들을 때 더 높은 곳에서 더 멋진 모습으로 그들에게 이야기하기 위해 더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의 분

명한 성공은 너무나도 분명한 우리 교회의 승리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목사님의 설교 중에서 이 말씀을 매우 좋아합니다. “나는 바보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안 계신다면 우리는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자입니다.” 우리 목사님이 34년 동안 치른 고난과 핍박이 얼마나 컸을지 가늠되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우리 목사님이 세계 70여 개국에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가 되자 세계 각국에서 많은 목사님들이 찾아오고, 그동안 이단이라 했던 여러 교회 목사님들이 몰래 찾아와 그 앞에 무릎을 꿇는 것을 봅니다.

나를 입증하는 것, 그것은 내가 잘 되는 것이고, 우리 교회를 입증하는 길은 우리가 잘 되는 것입니다.

김대화 성도

realdialog@naver.com

삶의 균형

‘균형 잡힌 삶’, 참 멋진 말이다. 그렇지만 이것만큼 이루기 어려운 일도 사실 없다. 내 육체는 끊임없이 나를 편안하고 안일하고 나태하고 악한 곳으로 강하게 이끌고 가기 때문이다. 그러함에도 우리는 크리스천으로서 삶의 균형을 잡아가려 끊임없이 노력해야 한다.

잘 알다시피 우리 인간은 영과 혼과 육으로 이루어져 있다. 영을 위해서 우리는 기도를 해야 하고 말씀을 묵상해야 한다. 혼을 위해서 공부를 하고 독서를 하고 자기계발을 한다. 육을 위해서 운동을 하고 좋은 음식을 먹어야 할 것이다. 이 세 가지를 모두 균형 있게 발전시키고 성장시켜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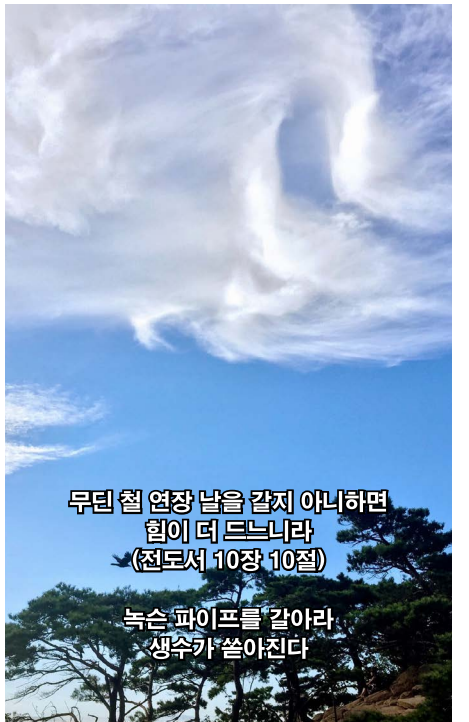
문제는 치우침에서 발생한다. 영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여 영성을 키우는 데에만 급급할 경우, 혼이 무너지게 되면 남에게 쉽게 상처를 주거나, 교만해질 수 있고, 육이 무너지게 되면 하나님 일을 해나갈 수 없다. 혼과 육에 치우치다가 영을 놓치면 결과는 더 끔찍하다. 다시는 하나님 나라에 이르지 못하는 불행한 결과를 초래한다.

삶의 균형을 이루기 위해 가장 좋은 방법은 나만의 하루 습관을 만드는 것이다. 가장 먼저 영성을 위해 본인에게 맞는 기도의 시간과 양을 정한다. 그리고 하루에 읽어야 할 말씀 묵상의 양을 정한다. 이 시간을 가장 먼저 떼어놓고 실천하며 나머지 일들을 계획한다.

그리고 운동시간을 정한다. 하루에 30분 정도면 충분하다. 동네 근처 작은 공원이거나 야산에는 비용 들이지 않고 운동할 수 있는 좋은 장소와 운동기구들이 충분히 많다. 마지막으로 혼을 위해 꾸준히 독서를 하고 신문을 읽고 관심 분야를 공부하며 자기계발을 해나간다.

이렇게 하루하루 나만의 습관을 가져 균형 잡힌 크리스천의 삶을 실행해나가고자 기도하고 마음먹어보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맞는 가장 좋은 방법과 바람직한 길을 예비하시고, 그분이 쓰시기 위해 가장 잘 갖춰진 우리의 모습으로 만들어나갈 것이다.

장명훈 집사



무뎌진 열정을 날을 갈지 아니하면
힘이 더 드느니라
(전도서 10장 10절)

녹슨 파이프를 갈아라
생수가 쏟아진다